

고전식물명 ‘檜’에 관한 고찰

공광성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Corresponding Author : acute2@daum.net

국문초록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고전식물명 ‘회(檜)’에 관한 고찰은 고문헌을 통한 민속식물연구에 있어 우선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고문헌 속에는 식물의 특징·이용방법·분포 등 다양한 정보가 산재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전식물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식물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식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대체로 전나무·노송·편백 등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어떤 기준을 통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특히 고전 번역에서 ‘회’는 번역자의 임의로 풀이하고 있어 이 자료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 또다시 오류를 낳게 한다. 따라서 고전식물명이 나오는 항목은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물명으로서 ‘회’가 어떤 이유에서 다양하게 해석되며,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올바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의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고전식물명의 바른 해석과 이를 통한 식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주제어 고전식물명, 회(檜), 민속식물, 전나무, 노송

투고일자 2016. 09. 29 • 심사일자 2016. 10. 18 • 게재확정일자 2016. 11. 05



I. 서론

민속식물학의 개념은 처음 생겨났을 때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기존의 민속식물학이 '초기의 인류가 식물을 이용한 방법과 토착식물에 대한 연구'였다면, 지금은 사람과 식물 간에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을 연구하는 새로운 과학 영역으로, 그 연구내용에는 인류가 식물을 이용한 전통 지식과 경험, 식물의 경제적 이용, 약용 그리고 생태적 이용과 문화적 이용의 역사, 현상과 특징 등을 포괄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이탈리아·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식물학·인류학·민속학·생태학·인문지리·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통섭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글에서 논하고자하는 고전식물명² '檜'에 관한 고찰은 고문헌을 통한 민속식물연구에 있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고문헌 속에는 식물의 특징·이용방법·분포 등 다양한 정보가 산재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전식물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식물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그 식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나무·노송·편백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어떤 기준을 통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특히 고전 번역에서 '회'는 번역자의 임의로 풀이하고 있어 이 자료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 또다시 오류를 낳게 한다. 따라서 고전식물명이 나오는 항목은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① 북한(北漢) 사람인 김계원(金啓元)이 편백나무[檜木] 306그루에 대해 품삯을 지불하였다

北漢人金啓元 檜木三百六株雇價³

② 푸른 노송은 만동묘를 에워싸고

靑檜繞皇廟⁴

③ 오사가 그린 전나무 참으로 생동하니

鳴師寫檜眞寫生⁵

이상은 「한국고전 종합DB」에 올라있는 번역문 가운데 '회'를 번역한 부분을 뽑아 본 것이다. 이처럼 편백·노송·전나무 등으로 각각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①은 목재 거래에 관한 내용이며, ②는 만동묘 주변에 있는 나무를 기록한 것이고, ③은 '회'를 그린 그림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는 분명 각각 특정한 식물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는 것인지의 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외에도 대부분 문헌에서 '회'의 해석이 제각각이며 그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물명 해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보이는 몇 가지 뜻 안에서 번역자의 임의로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회'의 의미가 다양하게 보이는 데도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해석에서도 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식물명으로서 '회'가 어떤 이유에서 다양하게 해석되며,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올바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의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

1 왕수진·왕우화, 1999, 「民族植物學」, 『生物學教學』 제24권, p.1.

2 여기서 고전식물명이란 고문헌에 보이는 한자로 된 식물명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한다.

3 『日省錄』 正祖 21년 3월 24일.

4 황경원, 『江漢集』 권2, 「月明獨坐巖棲齋 谿聲達宵入靈櫺 爽然不寐」.

5 이규보, 『東國李相國文集』 권16, 「次韻金承制仁鏡謝規禪師贈歸一上人所畫老檜屏風 二首」.

써 고전식물명의 바른 해석과 이를 통한 식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II. 본론

1. 중국에서 ‘회’의 의미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고문헌에 보이는 식물명을 동정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고문헌에 보이는 식물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 이용하고 있다.⁶ 특히 『본초서』, 『농서』 등과 같이 식물을 다루는 전문 서적을 연구의 기초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술이 상당수 누적되어 있어 연구의 기초자료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도 그 이유지만, 그 내용에서도 식물의 형태·분포·성미 등의 특성을 기술하여 식물을 동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 고전 식물명 연구에서 『본초서』, 『농서』 등과 같은 전문 식물서적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전식물명 연구에 있어서도 『본초서』, 『농서』 등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볼 수 있다. 하지만 『본초서』, 『농서』에 보이는 식물명은 대부분 중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거기에 보이는 식물 또한 중국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⁷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전 속에 보이는 식물명을 동정하기 위해서는 『본초서』, 『농서』 이외에도 다양한 문헌을 종합하여 고찰해보아야 그 실체와 어긋남이 없

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중국에서 ‘회’의 의미를 우선 살펴보려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 같은 한자명을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그 의미 또한 중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뜻에서 파생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8세기 무렵부터 물명의 고증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도 중국에서 사용하는 물명의 본뜻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선하여 중국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회’를 향나무로 풀이하고 있으며, 이 명으로 괭(栝), 원백(圓柏) 등을 사용하고 있다.⁸ 여러 문헌에 보이는 내용을 근거로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시경(詩經)』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시경』에서는 “회로 노를 만들고 소나무로 배를 만든다.[檜楫松舟]⁹”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식물명으로서 ‘회’에 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매우 짧은 내용이지만 ‘회’를 목재로서 이용하는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 목재가 단단하며, 부식에 강하고, 줄기가 곧아 노를 만들기에 좋은 나무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 그 수종이 무엇인지 짐작하기엔 부족하다. 나무의 형태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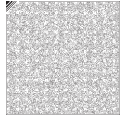
‘회’의 형태에 대한 설명은 『爾雅(이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아』는 가장 이른 시기의 어휘 사전으로 경전에 보이는 글자에 대해 풀이하고 있는데, 『시경』에 보이는 ‘회’가 어떤 나무를 이르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아』 「석목(釋木)」

6 중국에서는 청나라 말기 이래로 쌍명법(雙名法)으로 식물명을 기록하였으며, 동시에 고문헌에 보이는 식물명을 고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농학, 의학, 임학, 문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고명건 주편, 2006, 『植物古漢名圖考』, 대성출판사, 「前言」; 고명건 주편, 2012, 『植物古漢名圖考 續編』, 과학출판사, 「前言」.

7 예컨대, ‘杉’의 경우 중국에서는 넓은잎 삼나무로 정의하고 있는데(고명건, 2006, 앞의 책, p.141.). 이 수종은 아열대성기후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우리나라에 자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잎갈나무·전나무 등을 삼으로 일컫는 경우가 허다하다. 『救急方諺解』, “杉-전나무”; 『本史』, “杉-익가나무”; 『新增類書』, “杉-잇갈”. 이점은 명칭이 같더라도 식물의 분포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식물로 동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며, 중국과 같은 고전식물명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를 달리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8 고명건 주편, 2006, 앞의 책, p.261.

9 『詩經』 衛風, 「竹竿」.



조항에서는 나무에 관한 글자만 모아 풀이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회의 잎은 측백나무와 닮았고, 줄기는 소나무와 닮았다.[檜 柏葉松身]¹⁰”라고 하여 대략적이지만 ‘회’의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이아』에서 ‘회’에 대한 이 설명은 ‘회’를 설명하는 핵심내용으로 이후 여러 문헌에 인용된다. 이후 송나라 때 나원(羅願)은 『이아익(爾雅翼)』에서 ‘회’에 대해 부연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회의 일명(一名)은 괭(栝)이다. 『서경』 「우공(禹貢)」에서 ‘형주(荊州)에서는 공물로 춘(椿)·간(榦)·괭(栝)·백(柏)을 바친다.’고 하였다. 여기서 간(榦)은 자(柞:산뽕나무)이며, 괭은 회이다. 그러므로 회는 괭의 음을 곁하고 있다. 잎은 측백나무이면서 줄기는 소나무와 닮았다. 그 나무는 추위를 잘 견딘다. 그 재목은 장대하여 배나 관곽을 만들만하다. … 회는 지금 사람들이 또한 원백이라 부르며 측백나무와 구별한다.¹¹

이상의 내용을 보면 전통적으로 불려온 ‘회’의 명칭은 괭이라고도 하며 지금은 원백으로 불린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크게 자라는 교목이며, 추위를 잘 견디는 상록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 ‘측백나무와 구분한다’고 한 것에서는 ‘회’가 측백나무와 유사한 수종임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내용은 후대에 그대로 반영되어 『본초강목』에서는 ‘회’를 백(柏:측백나무) 조항에 두어 기술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원백이라 부른다.’¹²고 하여 당시 사람들 사이에 그 명칭이

일반화 되어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명칭은 현재까지 이어져 중국에서는 원백을 학명처럼 통용되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¹³ 즉 중국에서 원백은 향나무를 가리킨다. 이를 보면 ‘회’라는 명칭이 괭·원백 등으로 현재까지 전해져 ‘회’를 향나무로 동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식물 그림, 문학 작품 등에 보이는 형태 등으로 ‘회’를 향나무로 동정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자료가 있지만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고, 장을 바꿔 우리나라에서는 ‘회’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변화되어왔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2. ‘회’에 대한 해석의 변화

1) 전나무

하나의 식물명에 여러 가지 의미가 생겨나는 것은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문헌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실체를 파악하려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근대 이전에는 식물명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달라 동물이명(同物異名)·이물동명(異物同名)의 문제가 생겨난 것도 큰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미 전술하였듯이 중국에서는 ‘회’를 향나무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회’를 전나무로 풀이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오래전부터 ‘회’에 대한 글자를 전나무로 풀이하고 사용해왔다. 이러한 내용은 『훈몽자회(訓蒙字會)』 등과 같은 자서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¹⁴ 이 또한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문헌의 내용만으로 그 실체를 파악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0 『爾雅』「釋木」.

11 『爾雅翼』 권9, 「釋木」. “檜一名栝 禹貢荊州 貢椿榦栝栝 栝栝也 故檜兼有栝音 柏葉而松身 性能耐寒 其材大可爲船及棺槨 … 檜今人亦謂之圓栝 以別於側栝”.

12 『本草綱目』木之一, 「柏」. “柏葉松身者 檜也 其葉尖硬 亦謂之栝 今人名圓栝 以別側栝”.

13 『中國植物誌』는 고전에 보이는 식물명을 혼동하여 현재의 식물명과 대응되는 명칭을 기재하고 있는데, 향나무에 대해 원백을 통용명으로 삼고 『서경』에 보이는 ‘회’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중국과학원식물연구소, 2005, 『中國植物志』 제7권, p.362.

14 『훈몽자회』, 『신증유합』 등의 자서에서는 모두 회를 전나무로 풀이하였다.

『훈몽자회』는 1527년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회’를 전나무로 불러온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자 학습 서적은 문자를 익힐 때 가장 먼저 접하는 학습서이다. 특히 『훈몽자회』는 1913년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 간행된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책 가운데 하나이다.¹⁵ 이 책이 수 많은 사람에게 읽혀왔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자를 처음 배울 때 필독서로서 가장 모범이 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물명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여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¹⁶ 즉 ‘회’의 의미가 전나무로 일반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회’의 의미가 전나무로 일반화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나무를 지칭할 때는 오직 ‘회’만 사용했다는 말은 아니며, ‘회’의 의미가 전나무만을 뜻한다는 것은 아니다.¹⁷ 당시 대다수의 사람이 ‘회’를 전나무의 뜻으로 이해하고 사용해왔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여러 문헌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회’의 의미를 전나무로 풀이하고 있으며, 그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백은 또한 회와 닮았으나	圓栢亦類檜
곧게 자라는 점에서 구별되네	惟直爲少別
세상 사람들 그 나무 가져다	世人取其心
자단향으로 사용한다네	充作紫檀薰 ¹⁸

이 시는 ‘원백’을 주제로 시를 지은 것인데, ‘회’를 언급하여 ‘원백’과 다른 수종임을 말하고 있다. 중국에서 ‘원백’을 ‘회’라고 정의하는 것과 다른 내용이다. 여기서 이르는 ‘원백’이 정확히 어떤 수종을 이르는 것임을 알 수 없지만, ‘원백’과 ‘회’를 별도의 수종으로 보고 ‘회’가 ‘원백’과 다른 점으로 곧게 자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자.

15 박성훈, 2013. 『訓蒙字會注解』, 태학사.

16 회의 대표 뜻을 전나무로 풀이하는 것은 이후 여러 역어류·물명류·사전 등의 서적에 반영되었음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명	고전식물명	풀이	간행년
新增類合	檜	젓나무	1576
方言類釋	檜	젓나무	1778
倭語類解	檜	젓나무	1783~1789
才物譜	圓栢, 栢, 檜(本)	젓나무	1798
廣才物譜	檜, 寒樹	젓나무	1798 이후
國漢文新玉篇	檜	젓나무	1908
新字典	栢·檜義同(曷)栢同	젓나무	1915
漢韓大辭典	檜	젓나무	1999

17 다음의 표에서 전나무를 이르는 고전식물명이 다양하게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회’를 노송으로도 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송의 경우 ‘회’의 의미가 새롭게 더해진 것으로 보고 다음 장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서명	고전식물명	풀이	간행년
救急方諺解	杉木	젓나무	1466
譯語類解	檜松	젓나무	1690
同文類解	杉松	젓나무	1748
漢清文鑑	杆松	젓나무	1770
雅言覺非	杉	젓나무	1819
雅言覺非	檜	노송	1819
物名考	圓栢, 檜, 栢同	옛노송	1820
名物紀略	杉	젓나무	1870
通學徑編	檜	노송나무	1916

18 김창업, 『老稼齋集』 권2, 『圓栢』.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라고 부르는 것은 곧 중국에서의 종(縱)이다. 회(會)는 굽는다는 뜻이다. 회는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나무이므로 그 글자가 목(木)과 회(會)로 이루어진다. ...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 높이 솟아 수직으로 곧게 자라며, 크게 자란 것은 수십 길이나 되니 중국 사람들이 이른 회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¹⁹

이 내용에서 서유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회'는 중국과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그 다른 이유로 중국의 '회'는 굽어서 자라는 것을 이르는데, 우리나라에서 '회'라고 하면 수형이 곧으며 높이 자란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르는 '회'는 중국에서 이르는 '종'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회'라 부르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 우리나라에서 '회'의 의미가 중국과 다르며,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회'의 수형을 수직으로 곧게 자라는 나무로 여기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시의 내용과 일치한다. 다음의 내용에서 수직으로 곧게 자라는 '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여 삼목(杉木)을 두고 회(젓나무)라고 하고, 시인들은 매번 줄기가 곧고 하늘로 우뚝 솟은 나무를 보면 시를 읊으며 회라고 하니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병통이 이미 고질이 되어 한 마디 말로 바로 잡을 수 없다.²⁰

정약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목'과 '회'를 잘못 알

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나무로 일컫는 것이 '삼목'인데, 사람들이 '회'를 두고 전나무로 부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보면 서유구가 이른 '종(縱)'은 전나무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내용은 모두 '회'의 의미가 전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회'를 전나무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의 통용되던 '회'의 뜻을 부정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이외에 지명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회'의 의미가 전나무로 일반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향토대백과사전』(2003,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는 북한의 지명유래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풀어놓고 있는데, 전나무가 자라고 있는 환경에 의해 붙여진 지명이 상당수 보인다.²¹ 이는 전나무 분포지역을 보여줌과 동시에, '회'의 의미가 오래전부터 지명에 녹아들어 전나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다음으로 <그림 1>을 살펴보자.

이 그림은 겸재 정선(1676~1759)의 그림이다. 화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자 사당에 심어진 회를 그린 것이다. 수형이나 수고를 보았을 때 분명 전나무에 가까운 모양이다. 우리나라에서 '회'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림 1. '夫子廟老檜圖(왜관수도원).

전나무를 그린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당시 사람들이 공자의 사당에 직접 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지만, 그 사

19 서유구, 『林園十六志』 「晚學志」 권4. “東人所謂檜 卽中華之縱也 會者 曲也 檜多盤曲 故從木從會 … 今東人所謂檜 皆高聳挺直 大者數十仞 與華人所謂檜 全不相類”.

20 정약용, 『與猶堂全書』 第1集 雜纂集 第24卷, 『雅言覺非』 권1, 「檜」. “今俗誤以杉木爲檜[젓나무] 詩人每見直幹干霄之木 詠之爲檜 大非也 此病已纏 非片言可折”.

21 이 책에서는 젓굴[檜洞], 전나무굴[檜木洞], 회굴[檜] 등 회와 관련된 지명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전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 붙여진 지명이라 설명하고 있다.

당에 공자가 심은 ‘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 문헌을 통해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하지만 사당에 심어진 ‘회’가 어떠한지는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회’의 의미인 전나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현재 중국 공묘(孔廟)의 대성전 앞에는 오래된 향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선사수식회(先師手植檜)라는 비석을 세워 두고 공자가 직접 심은 것에서 1732년에 새로 돌아온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위의 그림에 보이는 전나무가 상상하여 그린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회’를 향나무로 해석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회’를 중국과 달리 해석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무가 높이 자라고 곧게 자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이 생기는 것은 『본초강목』에 보이는 ‘회’에 대한 설명으로 “그 나무는 높이 솟아 곧게 자란다.[其樹聳直]”²²라고 한 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분명 『본초강목』에서 이 설명은 향나무를 두고 이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향나무로 보지 않고 전나무로 본 것은, 향나무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눈·바람 등의 기후요인으로 굽어서 자라는 경우가 많지만 전나무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대부분 곧게 자란다. 따라서 전나무는 ‘기수용직(其樹聳直)’에 부합하지만 향나무는 이에 부합하는 나무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아』에서 언급한 ‘백엽송신(柏葉松身)’에 대한 해석을 중국과 달리 하여 ‘회’를 전나무로 보았을 가능

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柏’을 중국과 다르게 잣나무로 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²³ 중국에서는 ‘柏葉’을 측백나무 잎으로 해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잣나무 잎으로 해석하여 향나무와는 전혀 다른 전나무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사물을 동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측백나무 잎은 인엽(鱗葉)이며 잣나무는 침엽으로, 잎의 모양이 확연하게 다르다. 향나무의 경우 인엽과 침엽이 동시에 달리는 반면 전나무는 침엽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즉 ‘백엽’을 측백나무 잎으로 해석했다면 ‘회’를 전나무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회’의 의미가 중국과 다르게 전나무로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그 원인에 대해 유추해보았다. 그리고 ‘회’를 전나무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사실임을 몇몇 예를 통해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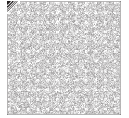
이처럼 ‘회’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전나무로 풀이된다면, 목재의 수급 등의 거래에 관한 문서, 공문서 등 실물을 일컫는 경우의 ‘회’의 의미는 대부분 전나무로 풀이된다고 볼 수 있다. 혹 당시 ‘회’의 의미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의미가 이미 전나무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므로, 특정 수종의 명칭을 기록하고 거래하는 내용에서는 ‘회’를 전나무의 뜻으로 사용할 밖에 없는 상황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²⁴

하지만 18세기 실학적 학풍이 일면서 물명에 대한 고

22 『本草綱目』木之一, ‘柏’.

23 중국에서는 ‘柏’을 측백나무로만 해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측백나무와 잣나무 두 종의 식물로 해석해왔다. 다음의 글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과 다르게 백을 잣나무로 해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송자(海松子: 잣)를 백자(柏子)라 하는데, 대개 잘못된 판단이다.[我東以海松子爲柏子 蓋誤也]”. 이덕무, 『靑莊館全書』 제54권, 『蝨葉記』;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백목(柏木)이라 하는 것은 무르고 건조하여 쉽게 상하니 장구한 계책으로 삼을 수 없다. 어찌서 중국의 백(柏)이 우리나라와 같지 않은 것인가.[柏木理脆燥易傷 不可爲久遠之計 豈中國之柏 與我東不同歟]”. 이만부, 『息山集』 권15 雜著, 『喪祭雜錄』.

24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공용문서에 사용되는 수목 명칭의 혼동을 막기 위해 ‘朝鮮主要森林樹木名稱表’를 고시하였는데(『조선총독부관보』 제29호, 1912년 9월 2일 제1면), 전나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회’로 사용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회’의 일반적 의미가 전나무임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 고시를 통해 공용문서에서 ‘회’의 의미는 오직 전나무만을 뜻하게 됨을 의미한다. 비록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한자명을 표시함에 ‘내지명(內地名)’과 ‘조선명(朝鮮名)’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고전식물명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회’를 전나무로 기록한 것 또한 당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회’에 대한 그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찰이 일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의 의미인 전나무가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가 일었다. 그리고 이러한 물명에 대한 고찰로 인해 이 무렵부터 '회'의 의미가 재해석되어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장을 달리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2) 노송나무

'회'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노송나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노송나무라는 식물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표준식물명으로 등록된 명칭이 아니다. 노송나무라는 이름은 예부터 사용하던 식물명이지만, 그 식물이 정확히 어떤 식물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다. 「국립표준식물목록」에는 향나무의 이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또한 어떤 이유에서 붙여진 명칭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²⁵ 이장에서는 '회'를 노송나무로 부르게 된 과정과 노송나무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가가 보도록 하겠다.

노송나무는 고전에서 '노송(老松)'이란 명칭으로 찾아볼 수 있다. '노송'은 일반적으로 '늙은 소나무'로 이해되기도 하고, 고유명사로서 식물명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 이처럼 '노송'이란 단어의 중의성 때문에 문헌자료에 식물명으로 볼 수 있는 '노송'에 관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혹 '노송'에 관한 자료를 찾았다 하더라도 어째서 '회'를 '노송'으로 부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회'와 '노송'을 함께 언급한 텍스트가 먼저 필요한데, 정약용의 저술인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이와 부합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회는 지금의 만송(蔓松)을 말하는 것으로[세간에서 노송(老松)이라 이르는 것이다], 그 가지는 굽어서 이리저리 얽혀 취병(翠屏)이나 취개(翠蓋)가 되는 것이 이것이다.²⁶

이상의 내용을 보면 '회'는 만송이며, 만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송이라 부른다고 하였는데, 노송이라는 말이 이전부터 나무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송을 '회'라고 주장한 것 또한 정약용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노송이 어떤 나무를 가리키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생각해보건대,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시경』에서 '회로 노를 만들고 소나무로 배를 만드네.[檜楫松舟]'라고 하였는데, 만송으로 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돛대 같은 장대를 줍(楫: 노)으로 여긴 것이다. 줍이라는 것은 짧은 노이다. 우리 집 뜰 앞에 있는 만송은 노를 만들 재목으로 매우 적당하다. 또 소식(蘇軾)의 『영회시(詠檜詩)』에서 '뿌리가 구천(九泉)에 이르도록 굽은 곳이 없으니.'라고 한 구절을 인용하며, 서리서리 굽은 나무는 아닐 것이라고 하였다. 아! 저 사람은 뿌리만을 말하였을 뿐, 뿌리는 줄기와 함께 곧게 자라지 않음이 없다. 그 나무가 서리서리 굽는 부분은 가지인 것이다.²⁷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는 짧은 노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라며, 수형은 곧고 가지가 잘 휘는 성질을 가진 나무로 보인다. 그리고 정원에 심어 관상수로 활용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약용은 '회'를 노송이라고 구

25 송도중학교 생물연구회, 1946, 『순우리말식물명집』, p.6; 이춘녕·안학수, 1963, 『韓國植物名鑑』, 범학사, p.6. 등의 식물명집에서 향나무의 이명을 노송나무라 표기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붙여진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국립표준식물목록」에서 향나무의 이명을 노송나무라 표기한 것은 이러한 식물명집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26 정약용, 『與猶堂全書』, 第1集 雜纂集 第24卷, 『雅言覺非』 권1, 「檜」. “檜者 今之所謂蔓松也 [俗所云老松] 蟠結爲翠屏翠蓋者시아.”

27 정약용, 『與猶堂全書』, 第1集 雜纂集 第24卷, 『雅言覺非』 권1, 「檜」. “按今人或云詩稱檜楫松舟 蔓松何以爲楫 彼以帆竿爲楫也 楫者短權也 余家庭前之物 正中楫材 又引蘇軾詠檜詩云根到九泉無曲處 非蟠屈者也 嗟乎彼所云者根耳 根與幹 未嘗不直 其蟠屈者枝條也”.

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의 문집에서 노송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괄(栝)은 회(檜)이다. 회는 언회(偃檜)와 사회(絲檜)가 있다. 지금 인가에서 이것을 엮어 취병이나 취개로 삼는 것이 이것이다.²⁸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에 푸른 만송을 자단향(紫檀香)이라 이름하고, 제사에 이것을 사르고 환약을 조제한다. 어찌 그 잘못됨이 심하지 않겠나!²⁹

이 내용을 보면 노송은 취병과 취개로 이용하고 있으며, 자단향이라 부르며 향이나 약제로 이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록수임을 알 수 있는데, 노송이 당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한 것으로, 노송이 어떤 나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물명고(物名考)』에 보이는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는 본래 다른 향목이 없다. 오직 측백나무 종류의 껍질이 붉은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향을 사르며 향나무로 부른다. 이것은 변방에서 생산되는 단향과 전혀 다른 종류이다. 그런데 그 껍질과 결이 서로 닮은 것으로 결국 약제로 이용하고 자단이라 이름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³⁰

이상의 내용만을 보면 정약용이 말한 노송은 향나무일 가능성이 높다. 향나무는 전통적으로 향으로 사용해 왔으며 지금까지 향으로 제조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자단향을 공물로 올린 내용이 여러 문헌에서 보이는데,³¹ 울릉도는 현재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남은 향나무 집단자생지로, 옛날부터 향나무가 많아 당시 공물로 진상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물명고』에서의 이 설명만으로 향나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명고』에서는 정약용과 같이 노송을 원백·회·괄로 정의하고 있지만, 『물명고』의 이 내용은 「향백(香柏)」 조항을 따로 두어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르는 향나무는 향기가 나는 나무 종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이른 노송을 향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는 중국에서 ‘회’를 향나무로 규정하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물명고』에서 「향백」 조항을 따로 둔 것은 오류가 된다.

다음의 내용을 보면 ‘회’를 우리말로 노가자(老可子, 노간주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³² 정약용이 말한 노송을 노간주나무로 볼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다.

회목(檜木)[속명은 노가자(老可子)인데, 세간에서는 또한 회목을 전목(箭木, 전나무)으로 삼으니 잘못이다]. 크게 자란 것을 잘라 두면 나무 끝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송진과 비슷하며, 향기가 진뇌(眞腦)와 흡사하다. 이 또한 정제하면 편뇌(片腦)를 만들 수 있다.³³

28 정약용, 『與猶堂全書』 第2集 經集 第24卷, 『尙書古訓』 권3, 『禹貢』, “栝檜也 有偃檜絲檜 今人家結之爲翠屏翠蓋者是”.

29 정약용, 『與猶堂全書』 第1集 雜纂集 第24卷, 『雅言覺非』 권1, 『檀』, “東人忽以蔓松之冬青者 名之曰紫檀香 祭祀焚之 丸藥劑之 豈不謬哉”.

30 유희, 『物名考』 권4, 無情類·木, 『香柏』, “我東本無他香木 惟有柏類之赤肌者 用以煎煎 謂之향나무 此與番地所產之檀香者 迥非一類 而徒以其肌理之相似 遂入藥以充紫檀之名 極可慨也”.

31 『朝鮮王朝實錄』 속종 28년 5월 28일; 『備邊司謄錄』 정조 21년 7월 18일; 『林下筆記』 권13, 文獻指掌編 『鬱陵島』;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萬物雜類 『物產辨證說』.

32 ‘회’를 노간주나무로 명시한 자료는 여기에서 인용한 자료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추후 자료가 더 발견되면 노간주나무로의 ‘회’의 의미변화에 대해 별도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33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服食類, 香油 『沈腦辨證說』, “檜木[俗名老可子 而俗又以檜爲箭木 非也] 大者斫置 則木頭生津似松脂 而氣恰似眞腦 此亦鍊製 則可成片腦者也”.



‘회’를 노간주나무라고 명시한 것은 정약용이 이른 것과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이 ‘회’를 전나무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내용은 정약용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나무의 진액에서 향기가 나며 그것을 편뇌와 같은 향으로 사용한다고 한 것을 보면 향나무로 불리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현재 경상도 지역에서는 노간주나무를 노송나무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³⁴ 이를 보면 정약용이 말한 노송이 바로 노간주나무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회’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단향으로 부르며 이용한다고 하였다. 자단향은 당시 공물로 바치던 것으로 분명 일정한 나무를 두고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자단향을 바쳤다는 기록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노간주나무는 자단향이 될 수 없다. 노간주나무는 오래된 지질에 석회암 지대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울릉도와 같은 화산섬 지역에는 분포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⁵ 그리고 다음의 내용에서 노간주나무를 향나무처럼 향으로 이용하지만, 흑단으로 불러 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흑단(黑檀)을 가져와 피우게 하였다. 흑단은 우리 말로 노가자(盧柯子, 노간주나무)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 향기가 매우 맑다.³⁶

이규경은 분명 ‘회’를 노간주나무라 명시하였으나, 이 내용을 보면 정약용이 이른 ‘회’는 노간주나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사람들이 ‘회’를 전나무로 부르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점에서는 정약용과 의견을 같이하지만, ‘회’가 어떤 나무를 가리키는지는 정약용과 견해를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이른 ‘회’ 즉, ‘노송’은 향나무를 이룰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리고 향나무의 경우 취병으로 활용한 근거³⁷가 남아 있어 더욱 신빙성을 더한다. 따라서 광복 직후 발간된 『순우리말植物名集』, 『韓國植物名鑑』 등의 식물명집에서 노송나무를 향나무로 풀이하는 것 또한 이러한 자료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표준식물명에서 노송나무를 향나무의 이명으로 기재한 것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만을 본다면 정약용이 이른 노송은 분명 향나무이다. 하지만 향나무만을 노송으로 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규경이 이른 ‘회(노간주나무)’ 또한 노송으로 불렀으며, 혹은 다른 수종을 일컫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다음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지금 세간에서 이른바 노송이라는 것은 잎이 삼(杉)과 닮았으며 소나무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³⁸

우리나라에서 삼은 대체로 침엽수 중 바늘잎 모양을 가진 상록수를 일컫는다.³⁹ 이러한 점으로 보면 인엽과 침엽을 동시에 가지는 향나무보다는 침엽으로 이뤄진 노간주나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만학지」의 이 내용에서 노송이 노간주나무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 향나무가 아닌 다른 수종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송이 여러 나

34 국립수목원, 2013, 『한국의 민속식물 -전통지식과 이용-』, p.126. 이 책은 현장조사를 통해 연령층이 높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술을 채록하여 작성되었다. 성주군 지역에서 노간주나무를 ‘노송나무’라 이르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노송나무를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노간주나무를 노송나무라 부르는 것은 한순간에 생겨난 명칭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불려온 명칭이다.

35 김중원, 2013, 『한국식물생태보감1』, 자연과생태, p.556.

36 윤휴, 『白湖全書』 권34, 雜著 「楓岳錄」, “更取黑檀燒之 黑檀則諺稱盧柯子也 其香甚清”.

37 김형석 외, 2013, 「서울 동관왕묘(東關王廟)의 공간구성 및 원형경관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 pp.33~50. 이 글에서 동관왕묘의 취병으로 사용한 수종을 향나무임을 규명하였다.

38 서유구, 『林園十六志』 「晚學志」 권4. “今俗所謂老松 葉似杉 全不類松”.

39 신현철 외, 2015, 「우리나라 고전에 나오는 한자 식물명 ‘삼(杉)’의 분류학적 실체」 『정신문화연구』 제38권, pp.235~260에서는 우리나라의 식물분포와 문헌에 보이는 내용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삼으로 불릴 수 있는 모든 수종을 언급하였는데, 삼을 전나무·잎갈나무·구상나무·노간주나무 등으로 추정한다고 논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수종은 모두 바늘잎 모양의 침엽수이며, 잎갈나무를 제외하고 모두 상록수이다.

무의 이명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노송나무에 대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나무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 서술 등 확정적인 근거가 없으며, 당시 식물분류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몇몇 특성만을 두고 다른 나무를 같은 이름으로 불렀거나 같은 나무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비록 이장에서 자료 부족으로 노송에 대한 실체에 더는 접근하지는 못하지만, 정약용이 이른 노송을 향나무로 추정하고, 노간주나무 또한 노송으로 불렀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송이 향나무 이외 다른 수종의 이명으로 불렸을 가능성을 드러내었다. 분명한 것은 ‘회’를 노송이라 불렀으며, 이는 정약용의 물명 고증 작업에 의해 불렀다는 점이다. 그리고 ‘회’를 노송이라고 한 정약용의 고증은 근대에 이르러 편백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는 장을 달리하여 논하겠다.

3) 편백

‘회’를 편백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대에 들어 생겨난 뜻으로 현재까지 이 뜻이 통용되고 있다.⁴⁰ 1908년 간행된 지식영(池錫永)의 『아학편(兒學編)』은 정약용 『아학편』을 저본으로 만들어진 책으로, 한자어를 기준으로 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의 대응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회’를 노송나무라 풀이하고 일본어로 ‘ヒノキ’라고 하였는데, ‘ヒノキ’는 편백을 이르는 말이다. 이 또한 정약용이 ‘회’를 노송이라 정의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어로 편백이라 해석하여 노송에 새로운 뜻이 더해진 것이다. 이는 노송이나 편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인

지 인지하지 못하고 뜻을 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송을 편백으로 풀이한 것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회’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노송과 대응하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편백은 일본특산종으로 일제강점기에 들어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본격적으로 인공 식재된 나무로,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수종이다.⁴¹ 따라서 우리 고전에서 보이는 편백은 현재의 편백이 될 수 없으며, 우리 고전 속에서 ‘扁柏(편백)’이라 불리는 명칭 또한 찾기 어렵다.

『물명고』에 편백이란 명칭이 보이지만, 『광재물보』, 『재물보』 등 다른 물명류 서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물명고』에서 편백을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목질이 누렇고 잘 자라고 잘 시든다. 산지나 언덕에서 자라기에 알맞다. 아마도 이 나무는 자송(刺松)인 듯하다.”⁴²라고 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물명고』의 저자 또한 편백이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하고 자송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물명고』에서 이른 자송은 노간주나무를 가리킨다. 편백의 실체를 볼 수 없었던 당시 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식영의 『아학편』에서 ‘회’를 편백으로 해석하였으나, 당시 사람들에게 ‘회’를 편백으로 인식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고 본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편백은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으로, ‘회’의 의미가 노송나무라는 뜻은 전달될 수 있겠지만, 편백은 그 어휘조차 생경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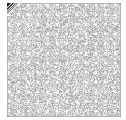
‘회’가 노송나무이며, 노송나무가 편백으로 그 뜻이 통용되는 시기는 일제강점기에 들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근대에 들어 이미 고전식물명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여러 문헌에서 보인다. ‘회’를 편백으로 풀이한 경우도 다수 보이는데,⁴³ 지식영이

40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노송나무를 편백으로 풀이하고 있다.

41 우리나라에서는 1905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편백을 시범 조림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조림하였다. 조선산림회, 1921, 『朝鮮山林會報』 제7호, p.7; 구관호·이강영, 1991, 「편백 인공림의 식생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80권 4호, pp.393~407.

42 유희, 『物名考』 권4, 無情類·木, “扁柏[質黃 易長易萎 山地丘壘并宜 恐是刺松] 刺松. 노가주나무”.

43 우리나라에 편백이 식재되기 이전 일본에서는 이미 편백을 ‘회’로 정의하고 불렀음을 다음의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회’를 편백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볼 수 있다. 本多靜六, 1899, 『学校樹栽造林法』, 金港堂(ひのき 扁柏 俗 檜); 矢田鶴之助 等編, 1903, 『造林大意』, 普及舎(扁柏 檜); 本多靜六, 1913, 『大日本老樹名木誌』, 大日本山林會(檜 扁柏); 原澄次, 1917, 『農用林學教科書』, 興文館(扁柏 檜).



『아학편』을 편찬하며 일본에서의 ‘회’가 편백으로 불리는 것을 그대로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문헌에서 ‘회=노송’의 등식은 성립될 수 있겠지만, ‘노송=편백’의 등식은 성립될 수 없다. ‘노송=편백’의 등식은 근대 이후의 경우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회=편백’의 등식이 성립되는데 이를 현재까지 통용하고 있다.⁴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회목(檜木)=노송=편백’의 등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지식 영의 『아학편』에 보이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부가적인 내용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3. ‘회’의 해석 변화에서의 그 의미

중국의 경우 한자로 표기하고 그대로 읽으면 말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로 표기하고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말로 풀이해야 그 뜻이 통한다.⁴⁵ 즉, 물명을 한자로 기록하는 동시에 우리식 해석이 뒤따라야 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문자로 표기하더라도 중국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곧 중국에서 사용하는 물명을 받아들이면서 그 해석은 중국과 달리하여 독자적인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명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면서 ‘회’의 의미 변화가 생겨난 것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물명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 실생활에 있어 혼동을 줄이기 위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명의 고찰을 통한 결과는 당대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중국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사용하던 기존의 뜻(전나무)에서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물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물명류 서적이 나오지만 물명의 풀이가 각기 다른 점이 보이며, 물명의 해석에서도 ‘恐(아마도), ‘疑(의심컨대)’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식물명을 풀이하는 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수라는 점이다.⁴⁶

둘째, 물명류 서적은 필사본으로 전하고 대부분 간행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⁴⁷ 이는 과급력과 관련된 부분은 당시 실학적 학풍이 일었다고 하지만 물명 고찰에 관한 것은 학문의 주류가 아니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일부 소수의 실학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 대부분으로, 물명에 대한 견해는 주관적인 생각과 논리로 이루어져 있어 당대에 공인되지 못한 것이다. 물명을 기록한 서적에서 보이는 명칭이 다른 문헌자료에서 드물게 보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이와 궤를 같이한다.⁴⁸

셋째, 물명 해석에 있어 식물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특징·이용법·재배법 등 식물을 동정할 수 있는 서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기존 문헌에 보이는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일어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여 물명의 오류가 거듭 생기

44 일본에서 근래에 발행된 고전식물명에 관련된 책으로 다음의 책이 있으며, 여기서 모두 ‘회’를 편백으로 정의하고 있다. 寺山宏, 2003, 『和漢古典植物考』, 八坂書房; 加納喜光, 2008, 『植物の漢字語源辭典』, 東京堂出版.

45 이 점에 대한 문제인식은 정약용의 다음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中國)은 말과 글이 일치한다. 한 사물을 말로 일컫는 것이 글로 적는 것과 같고, 한 사물을 글로 적는 것이 말로 이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름과 실체가 어긋남이 없고 표준말과 방언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中國言與文爲一呼一物便是文書一物便是言故名實無舛雅俗無別東國則不然]. 정약용,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十四卷, 『跋竹欄物名攷』.

46 다음의 내용을 보면 물명에 대한 풀이가 각각 달라 혼란을 일으키는데, 이는 당시 물명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각각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물보』에서 ‘원백은 전나무이다. 圓柏 전나무 檜木(本)’고 하였으나 『광재물보』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농송나무이다. 圓柏 今人所謂 農송나무”라고 하였고, 『재물보』에서 회백을 “지금 북도에서 미가나무가 바로 이 나무인 듯하다. 檜柏 今北道 미가木 疑卽此也”라고 하였는데, 『광재물보』에서는 회백을 “향나무인 듯하다. 檜柏 松檜相半者 疑是 향나무”라고 하였다. 그리고 『語彙』에서는 “적목은 향나무이다. 赤木 향나무”라고 하였다.

47 정승혜, 2014, 『물명류 자료의 종합적 고찰』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52~274.

48 물명류 서적에서 보이는 ‘檜尖, 血柏, 杆松, 蹇樹’ 등의 어휘는 기재된 서적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이 종합되어 기존의 의미를 타파하지 못하고 새로운 의미가 파생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새로운 의미가 파생된 결과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나무의 뜻에서 다른 의미가 새로 생겨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문헌상에 나타나는 ‘회’의 의미는 분화되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물명의 고증에서 각각 그 설을 달리하는 점에서는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작용을 한 것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18세기 물명 고증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오류에 오류를 낳게 만든다. 그 내용에서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문헌의 비교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명류 서적의 경우 고전에서의 식물명을 검색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명을 제공하는 등 고전 식물명 연구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이 당대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의미 해석이 명확하지 못한 점에서는, 고전에서 식물을 동정하기 위한 일차적인 자료로 활용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어휘의 변천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등 보조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회’의 의미가 중국과 어떻게 다르고 변화됐는지 살펴보았다. 우리 고전에서 보이는 ‘회’에 대한 해석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해석해야 한다. 특히 ‘회’를 전나무로 해석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매우 일

반적인 해석으로, 실경을 노래한 시문,⁴⁹ 공문서, 목재의 수급에 관한 내용 등에 보이는 ‘회’는 거의 전나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혹 다른 수종을 일컫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다.

‘회’를 노송나무라 일컫는 경우는 18세기 이후 정약용의 물명 고찰이 있고 난 뒤부터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회’를 노송나무로 풀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이 또한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비중은 작을 것이다. 그리고 노송나무의 의미는 향나무 이외에 노간주나무도 될 수 있으며, 혹은 다른 수종을 일컫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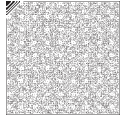
‘회’를 편백으로 일컫는 경우는 근대 이전에는 없다. 있다면 일본과의 외교문서에서 일본 측이 작성한 글에서 볼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회’를 향나무로 풀이하는 경우로, 이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전나무처럼 매우 일반적인 뜻으로 쓰인다. 중국의 문헌에 보이는 ‘회’는 대부분 향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맞을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전나무의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외교문서, 중국인의 글에서 볼 수 있는 ‘회’는 향나무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보면 우리 고전에서의 ‘회’의 풀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설정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공구서가 되는 사전에 가장 먼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한대사전』에서는 ‘회’의 뜻으로 전나무만을 기재하고, 『이야』, 『시경』, 『본초강목』 등 중국의 문헌만을 인용하고 있다.⁵⁰ ‘회’가 들어가 어휘의 풀이 또한 모두 전나무와 관련짓고 있어 그 오류가 심각하다고 하겠다.⁵¹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회’를 편백, 노송 등으로만

49 상상이 아닌 실제의 모습을 노래한 것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몇몇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구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유산기에서 산행하며 보았던 식물을 이르는 경우, 실제 자신의 정원에 식물을 심고 기르는 경우, 특정 식물에 대해 논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실물을 이르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5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2010, 『漢韓大辭典』 제7책, p.669.

51 『漢韓大辭典』에서는 ‘檜樾-전나무 그늘’, ‘檜楸-전나무 노’, ‘檜花-전나무 꽃’, ‘檜花蜜-전나무 꽃을 밀원으로 한 벌꿀’ 등으로 풀이하였는데, 여기에 보이는 어휘 또한 모두 중국서적 원문에서 근거한 것으로 모두 향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나무는 될 수 없다.



풀이하고 전나무로 풀이한 항목이 없다.

이상은 공신력 있는 두 사전에서만 예를 찾은 것으로 이러한 사전은 고전자료를 번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 과급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의 오류는 번역에서 그 오류를 그대로 반영하게 한다. 고문헌을 통한 식물의 이용, 분포, 특성 등을 고찰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문헌에 보이는 식물명의 정확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전에서의 어휘 해석에서 그 오류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고전식물명 '회'에 대한 논의를 하며 그 해석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나, 이는 문헌에서 보이는 '회'의 해석기준을 살펴본 것으로, '회'의 실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전나무의 경우 한대수종으로 우리나라 중부 이북의 높은 산지에 분포한다. 이 분포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 가령 남부의 도서지역 등 전나무가 자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를 '회'로 언급한다면 이는 다른 수종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등 전나무와 유사한 수종을 '회'로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같은 경우는 오동정(誤同定)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식물분류학적 관점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 원전자료

- 『廣才物譜』
- 『救急方諺解』
- 『同文類解』
- 『方言類釋』
- 『本草綱目』
- 『備邊司謄錄』
- 『詩經』
- 『語彙』
- 『譯語類解』
- 『倭語類解』
- 『爾雅』
- 『日省錄』
- 『朝鮮王朝實錄』
- 『漢清文鑑』
- 김창업, 『老稼齋集』
- 나원, 『爾雅翼』
- 류희춘, 『新增類合』
- 서명응, 『本史』
- 서유구, 『林園十六志』
- 유희, 『物名考』
- 윤휴, 『白湖全書』
-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 이규보, 『東國李相國文集』
- 이덕무, 『靑莊館全書』
- 이만부, 『息山集』
- 이만영, 『才物譜』
- 이시진, 『本草綱目』
- 이유원, 『林下筆記』
- 정약용, 『雅言覺非』
- 정약용, 『與猶堂全書』
- 정익로, 『國漢文新玉篇』
- 조선광문회 편, 『新字典』



참고문헌

- 최세진, 『訓蒙字會』
- 황경원, 『江漢集』
- 황응두, 『通學徑編』
- 황필수, 『名物紀略』

* 단행본 · 논문

- 고명건 주편, 2012, 『植物古漢名圖考 續編』, 과학출판사, 「前言」
- 고명건 주편, 2006, 『植物古漢名圖考』, 대성출판사, 「前言」, p.141, 261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조선향토대백과사전』
- 구관호 · 이강영, 1991, 「편백 인공림의 식생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80권4호, pp.393~407
-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 국립수목원, 2013, 『한국의 민속식물 -전통지식과 이용-』, p.126
- 김종원, 2013, 『한국식물생태보감1』, 자연과생태, p.556
- 김형석 외, 2013, 「서울 동관왕묘(東關王廟)의 공간구성 및 원형경관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 pp.33~50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2010, 『漢韓大辭典』 제7책, p.669
- 박성훈, 2013, 『訓蒙字會注解』, 태학사
- 송도중학교 생물연구회, 1946, 『순우리말植物名集』, p.6
- 신현철 외, 2015, 「우리나라 고전에 나오는 한자 식물명 '삼(杉)'의 분류학적 실체」 『정신문화연구』 제38권, pp.235~260
- 왕수진 · 왕우화, 1999, 「민족식물학」 『생물학교학』 제24권, p.1
- 이춘녕 · 안학수, 1963, 『韓國植物名鑑』, 범학사, p.6
- 정승혜, 2014, 「물명류 자료의 종합적 고찰」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52~274
- 조선산림회, 1921, 『朝鮮山林會報』 제7호, p.7
- 중국과학원식물연구소, 2005, 『중국식물지』 제7권, p.362
- 加納喜光, 2008, 『植物の漢字語源辭典』, 東京堂出版
- 本多静六, 1913, 『大日本老樹名木誌』, 大日本山林会
- 本多静六, 1899, 『学校樹栽造林法』, 金港堂
- 寺山宏, 2003, 『和漢古典植物考』, 八坂書房
- 矢田鶴之助 等編, 1903, 『造林大意』, 普及舎
- 原澄次, 1917, 『農用林学教科書』, 興文館

* 기타

- 「조선총독부관보」 제29호, 1912년 9월 2일 제1면
-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An Observation of the Classic Plant Name ‘Hwe(檜)’

Kong Kwang-Sung

Korea National Arboretum, Forest Museum

Corresponding Author : acute2@daum.net

Abstract

The observation of the classic plant name ‘Hwe’, that is to be discussed in this thesis, must be primarily conducted in folk plant research made through old documents. Diverse information such as the characteristics, method of use, and distribution of plants is scattered in old documents. However, reviews of classic plant names should be made to use such information. This is because information on plants can only be used after thorough verifications are made of the plant names.

‘Hwe’ is interpreted as various meanings in Korea but it is mostly used to mean fir, old pine tree, and cypress. However, it is not known by what standards such interpretations have been made. In particular, ‘Hwe’ is interpreted at the discretion of the translator in classic translations, so direct quotations from these lead to further errors. Therefore, items in classic plant names must be reviewed again. Why is ‘Hw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s a plant name and according to what standards should it be interpreted?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se questions. Also,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placed in the setting of guidelines for the interpretation of ‘Hwe’ so that classic plant names can be properly interpreted and information on plants can be accurately secured.

Key Word classic plant names, Hwe(檜), folk plants, fir, old pine tree

Received 2016. 09. 29 • Revised 2016. 10. 18 • Accepted 2016. 11. 05

